

본부의 연구년제 축소 계획에 대한 교수회 의견 수렴 결과

1. 조사 기간: 2018년 12월 19일~26일
2. 조사 방법: 교내 메일을 이용하여 찬성, 반대 표시 후 이유 기술
3. 조사 대상: 전체 전임교원
4. 응답자 수: 141명 (응답률: 00%)
5. 응답 결과: 찬성 10명 (7.1%)
반대 129명 (91.5%)
기타 2명 (1.4%)
6. 찬성 또는 반대 이유 (부분)

<찬성 이유>

◆ 모든 경비를 줄이고 있는 마당에 반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함.

◆ 연구년은 연구증진과 무관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있다. 미국가서 골프치고 애들 영어공부시키고...국내에서 학기중 방학 중 연구증진 가능하고 재충전 방학 때 충분하다.

◆ 현재 학교 형편을 볼 때 연구년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존립 위기가 코앞인데, 현재 수준의 급여 및 복지 유지는 당장 코앞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미 어느 정도 연배에 계셔서 대학 존립에 큰 이해 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당장의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기 보다는 이를 이후 세대에게 전가하는 느낌입니다.

<반대 이유>

◆ 저는 연구년제 축소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연구년제는 교수들의 역량강화와 재충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들에 앞서 연구년을 먼저 축소하겠다는 것은 연구년의 이러한 목적을 매우 폄하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떠한 노력도 해보기 전에 교수들의 연구 및 복지와 관련된 분야부터 줄이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줄인 예산은 다시 회복하기 힘듭니다. 교수의 복지 영

역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대야할 때가 오면 본부는 다른 분야의 노력을 먼저 보여주고 난 후 교수들과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 또한 연구년제 축소계획에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학교가 처한 상황은 이해하면서도, 모든 변화의 방향을 경제 논리로만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갈수록 연구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대구대학교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연구년 제도의 유지는 교수들의 연구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교수들의 연구 역량이 곧 교육 역량으로 직결된다는 점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 제도의 축소가 과연 목전에 시급한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연구년제 축소에 반대합니다. 연구년 보장은 현 총장님의 중심 공약이었습니다. 이를 변경하는 건 투표로 지지한 구성원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 학계 연구동향은 빠르게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교육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비문제, 타 학교 사례 등을 이유로 연구년을 축소하면 교육과 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학재정 문제, 대학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존과 관련된 문제는 대학 재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연구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살아남은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어떤 대학으로 생존할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이 대학답지 않다면 생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연구년제 축소로 얻는 것(강사로 절감?)보다는 잃는 것(교수의 창의적인 연구/교육 역량 강화의 기회)이 많다고 생각하며, 연구년제 축소로 얻어지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나 평가없이 섣부른 정책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의 연구년 축소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1) 구성원의 연구 의욕 저하로 인한 교육의 하향 평준화, 2) 대학 구성원의 논문 발표건수 저하로 인한 대외 인지도 하락, 3) 고등교육기관의 기본 가치 상실 등이 될 거 같습니다.

◆ 연구년제도 축소를 반대합니다. 학교차원에서도 중요한 발전 원동력이 되는 제도이면서 교원의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강의료와 같은 비용의 문제라면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을거라 판단되고 연구년과 관련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아시다시피 연구년은 교수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연구년 중에 새로운 연구의 주제를 발견하여 이후 연구의 줄기로 삼은 바 있습니다. 미루어둔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교수안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휴식만 한다고 해도 학자들에게는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금액 계산만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 무형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구년 제도는 교수의 자기 개발을 통한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므로 장려되어야 한다.
- 2) 우리 대학의 연구년 제도는 지역의 사립대학에 비해 우월하여 교수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못한 것을 따라가면서 하향평준화할 필요는 없다.

◆ 먼저, 이와 같은 의견 수렴 자체에 대하여 유감이라는 의견을 표하면서 연구년제 축소에 반대합니다. 교수들을 우물안에 개구리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연구년제 축소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을 많으나 이만 줄입니다.

◆ 10% 미만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히 접근하면서, 이제는 학교의 재정 운영에 있어 규모가 더욱 큰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크게 지출되고 있는 <관리비/운영비> 성격의 비용지출을 줄이고(2018 상반기 교수회 토론회 시 경제학과 전승훈 교수님 자료 참조), 장기적으로 feasibility analysis와 computerized simulation, 혁신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대학평가지표에 있어서 연구성과와 이의 확산과 현업화를 통한 산학협력(학생취업 포함)과 학교대외협력 및 이미지제고에 있어서 연구년을 통한 인적/학문적 네트워크 확대와 교원의 경험확장 그리고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현행대로 연구년 선정비율을 유지하되 연구원 선정조건 또는 연구년 기간 중 결과물을 연구 및 교육과 연계시켜 좀 더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 이 제도는 대학에 근무하고자 하는 동기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폭 축소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기 전에, 현 제도 시행에 따른 연간 소요비용, 사용인원 등 현황을 먼저 전 교원에게 통계를 보여주시고 다양한 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도 보여주시는 게 건설적인 논의를 위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저는 연구년 축소에 대한 본부의 계획에 다음의 3가지 이유를 근거로 반대합니다.

첫째, 연구년은 교원의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보장장치로서 학생 교육의 질과 연구를 강조하는 본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반대합니다.

둘째, 이미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적 구정과 제한이 있어서 학과 자체적 조건에 의해 가지 못하거나 실제 연구년 신청을 했음에도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선정 가능한 전체 규모를 1/2로 줄인다는 것은 교원간 경쟁을 높이고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교원이 임용 시 기대했던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셋째, 연구년제 축소는 아마도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연구제를 현재처럼 10%로 유지했을 때, 소요되는 재정적 지출은 정확히 얼마인지(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분석) 5%로 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인지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부가 제도 변경에 따르는 재정의 영향분석 없이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분석도 타당하고 합리적 방법론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디자인분야는 연구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마다 트렌드가 바뀌고, 흐름과 조류가 극심하게 변화하여 해외 또는 국내 페어를 참가하고, 현장실무도 경험해야 하는데(컴퓨터기술발전, 현장실무변화) 해외페어는 학기 초 2월말-4월 중순에(참가할 수 없는 조건)국제페어 열림

◆ 대학본부의 연구년제 축소 계획에 반대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1. 대학 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년제 시행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보통 대학교수의 가장 중요한 일로 교육과 연구를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경우, 교수의 연구 지원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년제마저 축소한다면, 이는 대학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년제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일방적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학 본부에서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 연구년 축소는 대학여건상 아직은 '반대' 입장입니다. 본부에선 대학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교수연구년 축소안을 들고 나온것 같은데, 대구대학의 현재 여건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단대(학부)내 학과별로 유사 중복교과목으로 개설해 놓은 동일내용의 수업과목들만 통합 및 폐지하여도 각 학과별로 20-30%의 교과목은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대(학부)내 학과별 유사중복 교과목만 감축해도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커버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

◆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는 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학의 연구년제는 교원의 재충전의 시간뿐만 아니라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중적인 연구결과물(예를 들어, 저서 출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참가를 통해, 해당 대학 관계자들과의 교류나 인맥구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개별적인 차원에서 보면 별 것 아닐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결집되어 대학 차원에서 활용된다면, 보다 효율적이며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학간 교류, 대학간 학술연구 진행 등)

◆ 일단 연구년제 축소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강사의 축소로 학기당 강의해야 하는 학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과 및 학교 업무로 인해 연구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만약 연구년마저 축소된다면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거나, 연구의 깊이로 더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연구년제 축소에 대해서는 결사반대 합니다. 연구년제 활용을 통한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교수님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고, 비용절감이 이유라면 연구년제 축소를 택하기 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들의 기본적인 연구 및 교육역량 충전을 위해 최소의 방법으로 남아있는 연구년 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기본적인 교수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연구년제의 장점은 연구와 교육 모두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1) 학제적 연구가 강조되는 학문 동향에서 자기 전공에 매몰되지 않고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독서와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저서 집필 등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해외 대학 강의 탐방 및 특강 및 해외 교수진과의 대화 등의 기회를 통해 국외의 강의 진행 방식이나 동향을 파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년 10% 정도의 비율로 연구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연구년은 일정 이상의 근무기간을 채운 교수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교수의 연구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교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포기(축소)한다는 것은 대학이 연구를 포기하는 것이며, 연구자로서 교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공의 특성과 사회적 수요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교수자로서 새로운 전공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전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년은 교수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전공 교육의 질적 개선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3. 세부적으로 연구년 교수의 선정 비율을 5%로 낮추게되면, 교수의 선정 근거 제시에 따른 문제,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학과 내 연구년 교수 선정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또한, 연구년 교수 선정 비율의 축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정적 도움이 큰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의견으로 저는 연구년제 축소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학사 업무 및 교수회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저희 교수들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연구년제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인데, 5%로 축소한다면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일부 교수들만 연구년을 갈 수 있겠죠. 학문의 발달은 신진과 원로의 조화가 필요한 것인데 원로들의 연구활동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의 생각은 연구년 축소는 교원의 사기를 꺾는 것이며, 또한 저처럼 10년이 지나고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정해놓고 선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연구년 교원이 해당 기간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실적물을 내는 것을 강화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연구 역량을 높여 대학 지표를 높이고, 교원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연구 성과를 집중적으로 낼수 있고, 그럴 생각이 안되는 분들은 지원하지 않게 되면서 연구년 교원 수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연구년제는 연구와 교육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이 기존의 지식을 반복 주입하는 '공장'이 되지 않으려면 심층적인 연구와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학의 둘러싼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우리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모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연구년제 축소계획에 반대합니다. 공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유능한 젊은 교수님들이 대구대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하여 그 누구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라는 단순한 자문조차도 대학의 현안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본부의 대응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말은 아하지만 우리 모두가 왜 그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부에서도 지난 여름 신입교원이 타 대학으로 갔고 인접한 학과의 경우에는 2명의 중진교수님들이 타 대학으로 떠나 갔습니다. 이들이 왜 떠

날까요? 저희들 스스로 자문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유능한 젊은 교수님들의 마음이 떠난 대구대는 늦가을의 정원처럼 쇠락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연구년을 축소하여 얼마의 예산이 절약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절감을 하더라도 교육과 연구 이외의 부분부터 예산절감을 해 나가는 것이 순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교육과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학교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 생각되어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 연구년제 축소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연구년이 가지는 순기능(강의질 제고, 연구역량 향상 등)이 명확하고,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를 유지하고 하위권 대학에서나 줄이고 있다는 점은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며, 무엇보다 연구년 축소의 근거로 내세우는 재정상황 개선의 효과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년은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전공 개설 학점 축소에 따라서 학과별로 책임시수를 채우기 위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연구년제가 10%에서 5%로 축소될 경우, 책임시수 문제가 더 심각하여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수들의 역량강화, 수업 개선 및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년제는 기존 방식으로 10%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구년 5% 축소 방안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구대학교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한 요소로는 교수의 역량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대학보다 교통도 불편하고 학생들의 수험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교수님을 추천하고, 임용하고, 정착하도록 했던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도 결국은 "교수진"의 역량입니다. 저희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 갖고 있던 일부의 비교우위를 최근 본부는 별다른 고민없이 모두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 무모한 결정을 통해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외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소속 인력의 인건비를 줄이고, 사기를 무너뜨리고, 동기부여를 해체하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전 어른 말씀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종자에 해당하는 핵심은 교수입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등이 본 궤도에 접어들고 전국 대학간 경쟁이 시작될 때 대구대는 무엇으로 생존전략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자칫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재정"이 그토록 심각하다면 교수회와 본부가 머리를 맞대

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도 지역대학에 있다는 것으로 음으로 양으로 차별을 당하면서 불안해 하는 교수사회가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 마다 상당한 동요를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총장과 교수회 차원에서 "교수"들의 사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타 의견>

본부의 연구년 축소 계획이 대학 재정 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책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연구년 축소는 피하는 것이 좋겠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회에 연구년 부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즉, 단순히 재직 기간이나 연구년 부여 회수와 같은 지표에 의해 결정하지 말고, SCI 논문 발표 실적이나 외부 연구부 수주 금액 등 우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실적에 의해 연구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는 연구년 결과물 요구 수준을 대폭 향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